부산 무정초등학교 - 향기 동산의 행복한 꿈

복잡하고 혼탁한 도심지에서는 학교에 식물을 가꾸고 쾌적한 향기 동산을 조성하여 자연의 신비감과 고마움을 깨닫게 하며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부산 무정초등학교는 지난 2005년에 개교한 학교로 현재 23학급에 57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 속의 학교이다. ‘아름다운 학교운동’ 부산 지역 본부이며, 2006년에는 학교 숲 가꾸기시범학교로선정되었다.

녹색 자연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도심 아이들에게 자연과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성을 순화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사철향기가나는푸른자연을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학교를가꾸어가고있다.

선큰가든과중정을쉼터공간으로활용

교사(校舍) 대지는부채꼴 모양이며 남북 방향으로 고저 차가 있고 3면이 도로에 접하였다. 교사의배치는 남향으로 일조를 최대한 살렸고, 주출입구는차량 통행이 적은 동쪽의 10m 도로에 접하도록 해 보도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을 배려하였다.

교사는ㄷ자형태로교실동, 관리동, 특별교실동 등으로 매스를 분리하여 고유영역을 확보하였으며 본관동과 후관동을 브리지로 연결하여 편리하게 하였다. 특히, 전관동후면에선큰가든을두어교실의 채광을 도모하였고, 그 공간은 학생들의 휴식과 놀이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본관교사와후관교사중정에는놀이마당과 화단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쉼터 및 체육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후관우측면1층을피로티로 처리하여 개방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주차장으로활용하도록하였다.

교장실과 행정실은 1층에 배치하여 학교를 찾는 내방객의 안내를 손쉽게 하도록 하였으며, 교무실은본관 교사의 중간층인2층에배치하여교실로의이동이용이하도록하였다. 또한, 각층에학년별교사연구실을두어선생님들의교수학습이용이하도록계획하였다.

교사 우측의 1층에는 4학급 규모로 한 학년이활용할수있는시청각실과2층에는 급식실, 3층은 다목적실, 4층은 음악실, 기술 · 가정과 교실 등을 블록화하여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에 대비하였다.

도서관은향기동산과인접한후관동편 2층에 배치하여 수평 및 수직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된 옥상에는 학생들이 휴식과 사색을 즐길수있는장을제공하였다. 복도의공간도단순한통행공간이아닌휴식과 대화, 놀이등학습공간으로활용하기위하여다목적공간을두었다. 건물의외부마감은외장타일, 화강석, 컬러프라스터로 마감하고 박공지붕과 평슬래브로 구성하여친밀감과조형미를살렸다.

녹색 자연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도심 학교의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실내를 장식하여 올바른 인성의바탕위에교수 · 학습이이루어지도록 한것은이학교의자랑이다. 이처럼무정초등학교는설계한건축가의의도와시공자의 정성, 그리고사용자의 애정이 함께

하모니를이루어큰빛을발하고있다.

봉사 활동 실천…착한 마음이 싹튼다

무정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자발적으로 교내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은1일봉사활동을생활화하고있는데봉사활동릴레이, 역할분담활동, 화장실과 현관 · 계단의 청소는 물론 유리창 닦기, 화단, 복도 쓸기, 운동장 휴지 줍기 등 봉사활동에적극참여하고있다.

더욱이활동영역을넓혀학부모들과함께 고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찾아실천하고있다. 이처럼무정초등학교의학부모와학생들은자발적으로봉사활동을몸소실천하며즐거운마음으로보람을찾고큰기쁨을가슴에안고있다.

향기동산에서정서적안정체험

매학기 초 전교생들은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보며, 나무에 이름을 붙여보고 내 나무로정하여가꾸면서, 각학급별' 재배식물 기르기일지 틀기록하고 있다. 식목일을전후해서는각기적합한식물을선정하여 작은 화분에 심고 가꾸며 학교의 텃밭에나가각종식물을돌보고물을준다. 토마토, 고구마, 감자, 상추 등을 비롯하여 고추, 가지, 오이, 작두콩 등의 식물도 함께가꾸고있다.

특히, 이학교에서는향기동산을가꾸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사철 향기 나는 꽃과 나무를 심어 저절로 인성이 순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봄에는 ' 서향 ,' 여름에는 ' 꽃치자 ,' 가을에는 ' 금목서, 은목서 ,' 그리고 사철' 천사의 나팔꽃 을 복도에 조성하여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녹색화단, 겨울에도볼수있다

무정초등학교는 추운 겨울에도 파릇파릇한생명을싹틔우는보리와우리밀녹색화단을조성하였다. 이에따라겨울철에도 푸른 화단을 볼 수 있는 무정 어린이들은 등교길 사이로 싹을 틔운 보리와 우리밀 화분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겨울철 재배로 인해 농약을 전혀 살포할 필요도 없다. 추운 겨울에싹을 틔운 보리와우리밀 녹색화단을걸어가는친구들은모두가즐거워하며이야기꽃을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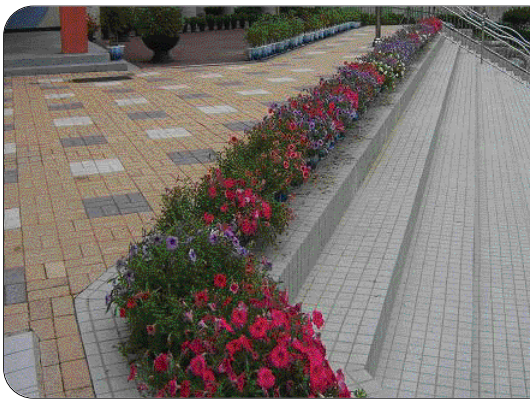
도심 아파트에둘러싸인 시멘트공간에서 맑고 싱그러운 녹색 빛이 환히 전해져 왔다. 교정에는 화분 속에서 연초록 화사한 빛깔의 새싹이 올라오더니 파릇파릇한 녹색잎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느 새 추위는 사라지고, 교정은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곳으로변화되었다.

' 천사의 나팔꽃 '과 함께 사철 향기 나는 동산을 조성하여 인성 교육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교육적으로 정서 순화를 해나가고자노력하는무정초등학교의아름다운모습은우리교육의 미래를 밝게 해 주고 있다.

중정의모습.

중앙현관및특별교실동.

반별식물재배모습.



학교오는길은꽃길.

우리밀싹을키워관찰하는모습.

정관영
충북교육청건축사무관(공학박사)